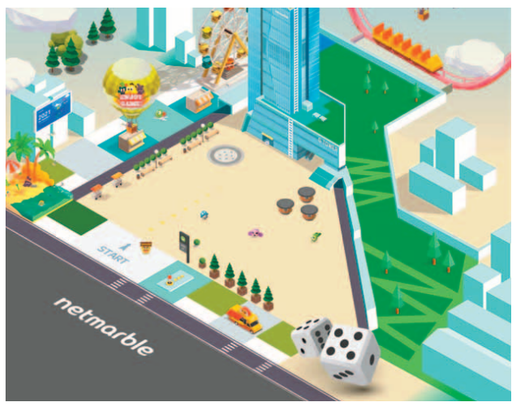
가상세계에서 채용상담부터 자동차 시승까지

넷마블, 직무상담 등 온라인 채용박람회 진행
LG, 디지털 전환 아이디어 시상·공유 행사 개최
네이버 '제페토'서 새 제품·서비스 마케팅 활발



SK텔레콤 '이프랜드'에서 열린 삼성전자 팬파티 '폴더블데이', 넷마블의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 '넷마블 타운', 키즈 메타버스를 구축하기로 한 최성금 키자니아 코리아 대표(왼쪽)와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넷마블·삼성전자·LG유플러스

'3차원 가상세계'를 구현한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MZ세대의 '힙한' 놀이터로만 여겨지던 메타버스를 인재 채용부터 업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하는 한편,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LG그룹, 행사도 가상세계에서

먼저 많은 기업들이 젊은 인재 채용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18일과 19일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 '캠핑'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메타버스에 캠핑장을 구현했다. 앞서 넷마블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채용박람회 '넷마블 타운'을 진행했다. 신사옥 G타워를 배경으로 가상공간을 구축했다. 지원자들은 아바타로 접속해 자유롭게 둘러보며 실시간 직무상담, 이벤트 등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IT업계 외에도 유통과 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채용과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 행사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LG 사이언스파크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그룹의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 'LG DX 페어'를 개최했다. 행사는 누구나 쉽게 참여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열었다.

LG는 앞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LG 커넥트'를 비롯해 각 계열사의 채용 설명회 및 신입 사원 교육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경우 본사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면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원격근무는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협업 툴 '메타폴리스'를 이용한다.

●MZ세대 겨냥한 마케팅

기업 내 행사 뿐 아니다.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마케팅 플랫폼으로도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 플랫폼이 바로 글로벌 가입자 2억 명을 넘어선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다. 나이키와 구찌, 랄프로렌, 크리스찬 디올 등 세계적 패션 및 뷰티 브랜드들이 제페토에 입점했다.

최근엔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GF리테일은 제페토 내에 CU 편의점을 오픈했고, KT는 메타버스 구장 '수원 KT위즈파크'를 열었다. 현대자동차는 가상공간에서 쏘나타N 라인을 시승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도 대학축제, K팝 팬미팅 등 대형 이벤트를 여는 한편 기업들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면서 세확장을 노리고 있다. 8월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3'와 '플립3'의 출시 기념 팬파티 '폴더블데이'를 이프랜드에서 열기도 했다.

한편 메타버스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와 함께 아이들 전용 메타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는 내년 중 국내 최초로 키즈 메타버스를 U+아이들나라 모바일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제주도서 비대면 디지코캠핑 개최

비접촉 차박 체험…AI서빙로봇으로 캠핑용품 등 전달

KT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탄소없는섬 제주 여행' 활성화를 위한 '디지코캠핑 인 제주'(사진)를 진행했다. 15일부터 16일까지 김녕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친환경 전기차 차박 행사를 열었다. 디지코캠핑은 구현모 대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쉽게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하나다.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참가자 가족들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차박 캠핑을 체험토록 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캠핑에 필요한 편의용품, 식재료, 음료 등은 AI 서빙로봇이 직접 자율주행으로 전달했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이용한 저탄소 요리도 체험하고, 공항에서 캠핑장과 관광명소를 오가는 동안 전기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스마트도로(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를 체험했다.

한편 KT와 제주관광공사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과 통합 관광 마케팅의 융복합 롤모델을 창출하고 성공적 사업 협력을 통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VR로 체험하고 구매하세요"…삼성, 'VR 스토어' 운영

스토어 접속해 360도 VR로 생생한 제품 체험
1대1 맞춤 화상 상담도…소비자 만족도 높아

삼성 가전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VR 기술을 이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제품 체험에서 구매까지 가능한 '삼성 VR 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상으로 실제 매장과 동일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비대면 통합 쇼핑 서비스'다. 제품 체험 뿐 아니라 전문적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PC나 모바일 기기의 웹 브라우저로 삼성 VR 스토어에 접속해 1층 모바일, 2층 영상·가전제품 코너로 구성된 매장을 360도 VR로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다. 또 냉장고, 세탁기 등 문을 열어 내부 사양을 확인하는 등 실제같은 생생한 제품 체험도 가능하다.

삼성닷컴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 'e-디테일러'와 연계해 전문적 제품 상담도 제공한다. e-디테일러는 6월 국내 가전 업계로는 처음 도입한 1 대 1 맞춤형 화상 상담 서비스다. 소비자가 삼성 VR 스토어나 삼성닷컴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앱 설치나 고객의 얼굴 노출 없이 전국 33개 매장의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오프라인 수준의 라이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장 방문을 우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 경우 등 직접 매장 방문을 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인 6월 대비 3개월이 지난 9월 상담 건수가 4배가량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e-디테일러 서비스에 연동되는 매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금주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변화하는 소비자와 유통 환경을 반영해 선보인 삼성 VR 스토어와 e-디테일러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 소비자 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토탈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NHN, 인공지능 챔피언십에 클라우드 제공

NHN은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경진대회 '인공지능 챔피언십 2021'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챔피언십 2021은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창업 경진대회다. NHN은 이번 행사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안정적 대회 운영을 돕는다. 대회 기간 중 전담 엔지니어를 배치해 참가 업체 전용 기술 응대 채널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해 데이터 보안 강화에 나선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18일 (월) 음력: 9월 1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오늘은 장성이 망신을 만난 날이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투자행위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친구 간에 자칫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오늘은 뭔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망신살에 원진살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매사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오늘은 돼지날이다. 말은 돼지날을 맞아 도전적이며 쿠데타의 기질을 갖게 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양이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원숭이가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엉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으면 나아지겠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승진 운이 있으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거든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돼지날이다. 돼지가 돼지를 만났으니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오늘의 날씨

18일(월)

서울 20/60	인천 20/60	춘천 0/30	
4 / 14	6 / 14	1 / 16	
강릉 0/20	대전 0/20	전주 0/20	
6 / 17	2 / 17	2 / 18	
광주 0/10	대구 0/20	부산 0/20	
3 / 18	1 / 17	8 / 20	
창원 0/20	제주 0/30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6 / 18	11 / 18	날씨 /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8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